

강기정 “5천만원 받은 적 없다” 김봉현 고소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판
법정서 여권 정치인 이름 거론
민주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연일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원에 진술한 것을 반박하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또 “라임 전주 김봉현, 강기정 靑수석에게 5000만원 건넸다”고 보도한 한 매체와 기자들을 대상으로도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예정이다.

앞서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모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대표가(당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고 했다”며 “5만원 짜리 다발을 소퐁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된 이 모 전 대표와 김봉현, 두 사람의 변호사법 위반 다름에 황당하게 제 이름 석자가 등장하고, 급기야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김봉현이 강기정에게 5000만원 줬다’는 허위 기사를 만들어 냈다”면서 “대



민주당 최고위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령 정무수석을 지낸 저를 한 순간에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 며칠째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서 “저는 먼저 싸움을 걸지 않으나, 걸어진 싸움을 피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수석은 “같은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과는 상반되게 이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한 매체는 마치 제가 곰품을 수수한 것처럼 제목을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봉현이 법정에서 이 전 대표의 말만 듣고 돈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도, 일부 매체와 야당은 마치 김봉현이 직접 저에게 돈을 건넸

것처럼 제목을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는 강기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의도를 목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여권을 비롯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여권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기동민 의원, 비례대표 조선의원 A씨, 전 의원 B씨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C씨 등이 수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임기 4년 동안 김 전 회장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말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심스럽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하면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배준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두 사건을 “사기나 다름없는 대형 금융 사건이자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오늘과 같은 어이없는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권익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문화재청, 백제미소보살 환수 사실상 포기”

문화재청이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일명 백제미소보살)’의 평가금액과 차이 등을 이유로 환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1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매입 가격 문제로 협상이 결렬된 2018년 이후 ‘백제미소보살’ 환수를 위한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7세기 중엽 제작되어 백제시대 불교 유물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백제미소보살’은 1907년 충남 부여 규암면의



한 절터에서 농부에 의해 2점이 발견된 후, 한 점(국보 제293호)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 중이며 다른 한 점은 일본인 수집가 이치

다 지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에서는 감정을 반영한 ‘백제미소보살’의 환수 금액으로 42억원을 제시했으나, 소장자 측에서는 약 150억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국세청 특채 80%가 법률직인데 패소를 증가”

최근 4년간 국세청 특채 10명 중 8명이 법률 관련직으로 나타났지만 국세청의 100억 원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은 2016년 31%에서 지난해 41%로 꾸준히 늘었고 같은 기간 패소로 배상한 소송비용은 1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은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특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132명의 특채된 인원 중 무려 107명이 법률 관련 직군이였다. 국세청이 조세 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는 아쉬웠다. 지난 4년 동안 국세청이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 2016년 약 28억 원에서

21.4% 늘었다.

양향자 의원은 “국세청에서 대응력을 높이고자 관련 분야 특채를 압도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과세 자체가 무리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민형배 “2년간 전국 보훈병원 다품목 처방 118만건”

지난 2018년 이후 전국 6개 보훈병원의 다품목 처방이 1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은 1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훈병원 6곳은 2018년 이후 내복약 772만건을 처방했다.

이 중 15.28%에 달하는 118만건이 12가지 이상 의약품의 한 번에 처방한 ‘다품목처방’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품목처방은 병용 복용시 약물 부작용 등 국민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약제비 상승과 환자의 복용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9년 11개 이상 약물을 먹는 집단은 2개 이하 복용 집단보다 사망위험이 54%까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이낙연 대표 특보단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특보단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이 의원의 당대표 특보단장 임명을 보고하는 한편 특보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단장에 임명된 이 의원은 현역의원은 물론 원외위원장, 외부전문가가 망라된 20명 내외의 특보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보단은 당대표께 정책적, 정무적 자문을 충실히 수행, 당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데 중심에 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특보단을 권역별, 직능별, 청년·

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당 대표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특보단의 자문이 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운영방향을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동교동계 복당 타진 ‘난감하네’

친문계·영남권 정서 부정적...지도부, 이낙연 대표 회동설 부인

더불어민주당을 집단 탈당했던 옛 동교동계 인사들의 복당 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동교동계 인사들과 ‘순차 복당’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동교동계는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며 집단 탈당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복당 권유 주장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가 최근 동교동계를 만난 적이 없고, 이들의 복당을 논의하거나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불가

근불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민주계로 분류되기도 했던 이 대표는 동교동계 복당에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주류인 친문계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아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정 전 고문이 이 대표 취임 직후 복당을 추진하다 일단 보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한 중진 의원은 “(원로들이) 과거 당에 대한 적대 행위를 많이 했기에 친문 쪽에서도 좋아하지 않고, 특히 영남에서는 정서적으로 대단히 좋지 않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여 “공수처 논쟁되면 야당이 더 망해”

후보추천위원 선정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야당도 목숨 걸고 반대할 법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선정을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야당도 비토(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 권한을 행사하면서 야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의 청계산 비공개 만찬에서도 ‘공수처는 되도록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그쪽에서도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사람을 찾는데 어려

움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논쟁이 되면 둘 다 망하는데, 야당이 더 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관해서는 “기업, 전정령 등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하는데 철 지난 이야기”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큰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너무 ‘하드랜딩’ (경직육)”이라며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합산으로 하고 현안을 파악해(금액을) 조정해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